

무심코 긁다가는 감염까지... 미세 상처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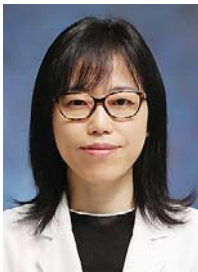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 건강다이어리

<82> 연조직염

손상된 피부에 미생물 침투해 발생
피부가 점차 붉게 변하고 부어올라
심하게 긁지 말고 피부 보습에 신경
항생제 치료·농양 있으면 절개해야

연조직염은 세균이 피부의 진피와 피하조직을 침범해 발생하는 피부의 발적, 부종, 열감,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감염 질환이다.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피부의 손상된 부분을 통해 미생물이 침투해 발생하는데, 곤충에 물린 곳, 긁어서 생긴 상처, 무좀과 같은 작은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피부 속으로 침입,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대상포진, 알레르기 피부염, 수술 부위 상처의 2차 감염으로 생기기도 한다. 여름철과 같이



오현주 교수

기온이 상승할수록 더 자주 발생한다. 이번 제주인의 건강보고서에서는 오현주 제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도움을 얻어 '연조직염'에 대해 알아본다. 처음에는 감염된 피부가 점차 붉게 변하고 점



연조직염. 사진=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llulitis.jpg (CC BY-SA 3.0).

점 부어오르면서 두꺼워진다. 국소 부위 열감이 발생하며 때로는 발적이 생긴 피부에 점상 출혈이나 출혈 반점, 물집, 고름집이 생긴다. 세균 감염이 확산하면 인접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며 전신 발열, 오한이 동반될 수 있다. 다리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얼굴, 팔, 몸통 등 어디에나 생길 수 있지만 다리에 가장 빈번하게 생기고 거의 항상 한 쪽에 생긴다.

여러 다양한 세균이 연조직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균은 베타용혈 사슬알균과 황색포도알균이다.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 확인하지만 원인균이 배양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연조직염은 임상 소견으로 진단하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국소 열감을 동반한 피부 발적이 있을 경우 연조직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동반하는 합병증이나 감염 진단이 필요할 때는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한다. CT(컴퓨터 단층촬영), 초음파, MRI 등이 농양의 유무를 구별하거나 골수염, 괴사관막염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접촉성피부염, 벌레 물림, 대상포진,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심부정맥 혈전증, 감염성 동맥류 등 여러 질환과 구별이 필요하다.

치료에는 항생제 투약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경구용 항생제로 치료한다. 병변이 빠르게 진행하거나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는 정맥주사 항생



연조직염. 사진=https://www.flickr.com/photos/104346167@N06/44699141152 (CC0 1.0).

제 치료가 필요하다. 농양이 있다면 절개해 배농 한다. 열이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 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병변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냉찜질을 하면 부종 호전에 도움이 된다. 무좀이 있는 경우는 항진균제를 병용한다. 연조직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수 주 동안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한다.

합병증으로 패혈증,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패혈증 쇼크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발에 무좀이 있거나 림프부종이 있을 경우 재발률이 높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좀을 치료하고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렸을 때 긁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피부가 건조해져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리에 만성적으로 부종이 있는 경우는 다리를 높게 올리거나 압박 스타킹 등을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당뇨병 환자, 만성정맥부전, 림프부종이 있는 환자들은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야외 활동이나 피부 노출 후에는 피부에 상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상처가 발견된다면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대학교병원·한라일보 공동기획

건강 Tip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는 법

식약처 '의약품 사용방법' 발표 안전상비약, 용법·용량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 구매요령 및 사용방법'을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는 ▷식중독 발생 시 의약품 사용 ▷두드러기약 사용 ▷안전상비

의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먼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가 우선이다. 부득이 식중독에 걸릴 경우 지사제를 먹는 일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식중독 증세를 오래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 및 수시로 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또 항생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양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오히려 내성균이 발생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음식을 먹은 후 또는 성토길 풀 등에 피부가 닿았을 때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 먹는 약을 복용했을 때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바르는 약의 경우 5~6일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

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의료기관 휴진으로 직접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 전 의약품 설명을 읽어보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해열진통제는 과다 복용 시 간 손상 또는 신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해야 한다. 또 소화제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판크레아틴'이라는 효소제가 포함되어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한다.



송은범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도)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스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관심과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